

육아정책의 회고와 전망

이윤진 외



육아정책의 회고와 전망¹⁾

저 자

이윤진, 김은설, 김은영, 최윤경, 강은진,
유해미, 박원순, 김아름, 김근진, 박은정,
김자연, 김지원, 송신영, 김문정, 김혜진,
이혜민, 박은영, 김태우, 김영민, 노현정,
이재복, 김호동, 김희원, 주송희, 최혁준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이 윤 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은 설**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은 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최 윤 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강 은 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유 해 미**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 원 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아 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근 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 은 정**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 육아정책연구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연보 제작과 기념식·학술행사 등을 수행하는 사업성 과제임.

연구진

공동연구자	김 자 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지 원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송 신 영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문 정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자	김 혜 진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자	이 혜 민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자	박 은 영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자	김 태 우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자	김 영 민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자	노 현 정 (육아정책연구소 책임행정원)
공동연구자	이 재 복 (육아정책연구소 책임행정원)
공동연구자	김 호 동 (육아정책연구소 책임행정원)
공동연구자	김 희 원 (육아정책연구소 선임행정원)
공동연구자	주 송 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행정원)
공동연구자	최 혁 준 (육아정책연구소 선임행정원)

2025 연구개발직립금사업 01

육아정책의 회고와 전망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인	황옥경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승림디앤씨 02) 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139-5 [93330]



머리말

우리나라의 육아정책은 2000년대 이후 사회·경제·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전례 없이 빠르게 확장되고 재편되어 왔습니다. 저출생의 장기화, 가족형태의 다변화, 영유아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는 기존 정책 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했으며, 이러한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육아정책연구소는 정책의 설계와 실행을 뒷받침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본 연구사업은 연구소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20여 년간의 육아정책 변천과 연구소의 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그 주요 성과물이 「20주년 기념연보」와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대회」입니다.

본 보고서에는 이 두 성과가 도출되기까지의 준비 과정과 다사다난한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제였으나,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연구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연구소의 지난 발자취를 깊이 있게 되돌아보고, 향후 육아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탐색하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창립 20주년 기념식과 국제학술대회를 멀리서나마 축하해 주신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 국회의원, 그리고 레고재단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직접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역대 소장님들, 관계 부처 공무원 여러분, 육아정책 네트워크 기관장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소는 여러분의 성원과 응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육아정책을 선도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 옥 경



목차

요약	1
I. 서론	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2. 연구내용	9
3. 연구방법	11
II. 20주년 기념연보	13
1. 20주년 기념연보 추진 착수	15
2. 20주년 기념연보 추진 과정	16
3. 20주년 기념연보 주요 내용	22
III.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행사	27
1.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행사 추진 착수	29
2.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대회 추진 경과	30
3.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대회 추진 내용	33
IV. 다음 20년을 준비하며	37
1. 요약: 지난 20년의 회고	39
2. 다음 20년을 향해: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육아정책 Think Tank로	40
3. 미래 육아정책 연구의 지향점	42
참고문헌	45
Abstract	47



표 목차

〈표 Ⅰ-3-1〉 20주년 발간위원회 및 준비위원회 구성	11
〈표 Ⅰ-3-2〉 20주년 관련 간담회 및 자문회의 추진 현황	11
〈표 Ⅰ-3-3〉 20주년 발간위원회 추진 현황	12
〈표 Ⅰ-3-4〉 20주년 준비위원회 추진 현황	12
〈표 Ⅰ-3-5〉 20주년 기념연보 및 행사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회	12
〈표 Ⅱ-2-1〉 20주년 기념연보 통사 목차(안) 및 집필자	17
〈표 Ⅱ-2-2〉 20주년 기념연보 연구사 세부 주제 및 집필자	17
〈표 Ⅱ-2-3〉 20주년 기념연보 추진 일정	18
〈표 Ⅱ-2-4〉 요약본 목차	20
〈표 Ⅱ-2-5〉 20주년 기념연보 요청 자료 및 담당 부서	21
〈표 Ⅲ-2-1〉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행사 구성 및 기획	31
〈표 Ⅲ-2-2〉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행사 준비위원회 과업 계획 및 일정(안)	32
〈표 Ⅲ-2-3〉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행사의 업무분장	32



그림 목차

[그림 III-3-1] 육아정책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대회	35
[그림 III-3-2] APEC 교육장관회의 연구소 유보통합 홍보 부스	36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국가, 지자체, 사회 전반에서 육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 중심에서 2005년에 설립한 육아정책연구소(전, 육아정책개발센터)가 일익을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님.
- 창립 20주년을 맞아 육아정책연구소의 발자취를 정리, 기록하는 작업은 곧 우리나라 육아정책 역사의 주요 시기를 보존하는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음.
- 본 연구사업은 2000년대 중심으로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변천사를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육아정책연구소의 설립 배경, 설립 이후 수행한 연구와 사업 등의 고찰을 통해 정리, 분석하고(회고 부문) 다음 20년의 연구소가 해야 할 과업과 육아정책의 미래 방향을 모색함(전망 부문).

나. 연구내용

- 20주년 기념연보 제작,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행사 개최, 20주년 기념 동영상 제작 등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위원회(발간위원회, 행사준비위원회) 구성·운영, 면담조사

2. 기념연보

- 제1차 20주년 발간위원회(5.29.)
- 기념연보 전문 사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준비 및 발주(6월~7월)

□ 기념연보 전문 사사업체 선정(7.28)

□ 20주년 기념연보 통사와 연구사 구성

○ 통사 목차

구분	내용		
KICCE 20년의 발자취	도입	타임라인/숫자로 보는 KICCE 20년	
	본문	1기	육아정책 전문 연구기관을 세우다(2005~2009)
		2기	육아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다(2010~2017)
		3기	육아정책 선도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다((2018~2025)
마무리	20년의 회고, 20년의 전망		

○ 연구사 목차

연구주제 대분류	연구주제(안) 소분류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아동패널·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코로나19 발달연구, 성장발달 코호트 구축 • 아동권리/장애, 발달지연 아동 지원/ 미디어/사교육
부모/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내 부모 역량 제고 : 취약계층 등 다양한 가족 육아지원/결혼·임신·출산 등/ 부모교육 • 가정 내 양육지원 : 무상교육 등 이용자 입장에서의 기관 이용비용 지원, 공급 확대, 일하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
유치원/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통합 및 격차 해소(완화) 연구/ 유초연계 연구/교사 대 아동 비율 등 • 영유아 교육보육 과정(방과후/특별활동 포함) • 교직원 연구(자격, 연수, 양성 등) •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컨설팅, 공공성 제고, 돌봄기능, 시설설비, 급간식, 행정지원 등 연구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 친화 환경 조성 연구/ 어린이 문화시설/ 미래 사회 대응 육아정책 연구(인구구조화·지역소멸·디지털 등)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기반 중장기 정책 설계 : 전국보육실태조사/유아교육실태조사/직장어린이집/아이돌봄실태조사/ 산후조리 실태조사/ 중장기 보육/유아교육 계획 및 로드맵 연구 등
국외/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 기반의 육아정책 연구 및 개발도상국 지원/ 중구협동연구 등

3.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행사

- 전체(발간 및 준비)위원회 회의 (2025.5.7.)
- 제1차~3차 20주년 준비위원회 개최
- 행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7월~8월 중) 및 기술평가위원회 개최(8.27.)
; 전문 행사업체 선정
-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행사 날짜 및 장소
 - 날짜: 2025년 12월 5일
 - 시간: 기념식(오전), 국제학술행사(오후)
 - 장소: 르메르디앙 3층(서울 중구 소재)
-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행사 개최
 - 기념식 주제: [회고] 연구소 20주년 맞이하여 성과와 비전 제시
 - 국가 정책에 기여한 연구 성과, 정책 변화의 흐름과 연구소의 역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연구의 방향 제시 등
 - 국제학술행사 주제: [전망] 메가 트렌드 시대와 육아정책의 미래
 - AI, 기후변화, 인구구조변화(저출생) 등의 도래한 미래의 메가 트렌드 시대에 대한 기초강연과 육아 관련 세부 주제발표로 구성
 - 통합적 관점, 지속가능한 정책, 공공성 강화, 연구소 역할 확대 등의 방향성을 토대로 미래비전 탐색(토론)
- 2025 APEC 교육장관회의 참가(5.13~5.14.)
 - 2025 교육장관회의 주제(안)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와 포용적 성장 촉진”
 - 연구소는 유보통합 정책 홍보 부스를 운영, 정책 추진 현황과 추진방향을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소개하고 정책 홍보 확산에 기여함.
- 20주년 기념 동영상 제작
 - 연구소의 설립과 성장 과정, 그리고 미래 비전을 압축적으로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상영함.

4. 다음 20주년을 준비하며

□ 지난 20년을 회고, 정리한 것을 토대로 육아정책연구소의 다음 20년의 과업을 모색함.

○ 앞으로 육아정책연구소가 마주할 정책 환경은 저출생의 구조화와 인구감소 사회의 본격화, 가족 형태와 삶의 방식 변화, 디지털 전환과 기술혁신, 기후 위기 및 감염병 등 복합적 사회위험의 상시화로 인해 더욱 높은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특징으로 함.

- 이러한 변화는 육아정책을 개별 정책 영역이 아닌 사회구조 변화와 긴밀히 연결된 핵심 사회정책으로 재인식할 것을 요구하며, 연구소 역시 출산·돌봄·가족·아동권리를 포괄하는 통합적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할 시점에 있음.

□ 유보통합 정책의 증장기 연구 지원 강화

□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역량 고도화

□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가교 기능 확대

□ 미래사회 대응 연구 확대

□ 국제 비교 및 협력 기반 강화

□ 연구소의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 미래 육아정책 연구의 지향점

○ 유보통합 정책 선도 및 질적 제고 도모

○ 육아정책 “돌봄”에서 “성장”으로: Care to Grow

○ 디지털·AI 시대의 ‘육아 리터러시(Parenting Literacy)’ 개념화

○ 기후변화 대응 육아정책

○ 다변화 시대의 ‘보편성’과 ‘맞춤형’의 균형있는 육아정책

○ 돌봄의 탈성별화

I

서론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내용

03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한 국가의 육아정책은 그 나라의 영유아 및 아동, 여성, 가족, 경제 등 제반 정책의 철학을 반영함.
- 오늘날 OECD 주요 국가들과 육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평균 이상으로, 국가의 재정 투입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교육·보육정책은 그동안 괄목 성장함.
- 2010년대 이후 무상보육·교육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우리나라의 영유아 1인당 연간 평균 공공지출 비용은 6,900달러로 OECD 평균 5,500 달러나, EU 평균 5,200달러 보다 높음. 또한, GDP 대비 ECEC 공교육비 비중 역시, 0.9%로 OECD/EU 평균 0.7%보다 높음(김동훈 외, 2021).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예산규모를 보면, 제1차(2006-2010)에서는 19.7조원이었으나 제3차(2016-2020)에서는 108.4조원으로 급증함(김나영, 2018). 제4차(2021-2025)에서도 신규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4년간 약 9.5조원 추가 투입함(관계부처합동, 2020.12.).
- 공보육·교육 정책 확산으로 모든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하고 있음.
 - 어린이집의 비용 부담 정도는 2012년 3.2점(5점 척도)에서 2015년 3.0점, 2021년 2.7점으로 점점 낮아짐(김은설 외, 2021).
 - 유치원의 비용 부담도 평균 2.30점(5점 척도)으로 어린이집보다 낮았으며 유치원 중에서도 비용이 비싼 사립사인유치원의 비용부담도 2.77점(5점 척도)임(김은영 외, 2022).
- 일·가정 양립 정책 강화,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제도 등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예전과 달라졌음을 의미함. 결혼·출산 후에도 일하는 여성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정책이 확대 강화되고 이는 다시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기제로 작동함.

- 맞벌이 가구 비율이 2015년 44.2%에서 2023년 48.2%로 증가 추세이며 어린 유자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30~39세의 맞벌이 가구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58.9%임(2023년 기준)²⁾.
- 이처럼 우리나라의 육아정책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육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그 중심에 육아정책연구소(전, 육아정책개발센터)가 일익을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님.
 - 육아정책연구소는 국책연구기관(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영유아 중심의 육아정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5년에 개소함.
 - 연구소 설립의 주요 배경은 이원화되어 있었던 교육·보육 정책연구를 유보통합을 궁극적으로 지향하면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됨.
 - 유보통합 외에도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보편적인 공교육·보육제도 확립, 이에 따른 재정 투입,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질 관리(평가(인증)제, 교사 양성 등) 등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연구소의 수행 연구와 사업이 증가함.
 - 아울러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도 병행 추진되면서 관련한 연구 주제는 더욱 다양해지고 넓어짐.
- 우리나라 육아정책사에서 육아정책연구소 설립은 정부 정책에서 육아정책의 중요도와 그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즉, 생애초기단계의 성장·발달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지하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실행의지를 보여줌.
-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육아정책사에서 2000년대는 한 획을 그은 시기로 평가받을 것이며 그 가운데에 육아정책연구소가 자리잡고 있음.
 -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육아정책연구소의 발자취를 정리, 기록하는 작업은 곧 우리나라 육아정책사의 주요한 시기를 보존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음.

나. 연구 목적

- 본 연구사업은 2000년대 중심으로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변천사를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육아정책연구소의 설립 배경, 설립 이후 수행한 연구와 사업 등의

2) e-나라지표, 맞벌이가구 비율,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 37 (인출일: 2025. 3. 24.).

고찰을 통해 정리, 분석하고자 함(회고 부문).

- 아울러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추구해야 하는 육아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모색함과 동시에, 국제적 관점에서 육아정책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고자 함(전망 부문).

2. 연구내용

본 사업은 크게 20주년 “기념연보 제작”과 “기념행사 및 국제학술행사” 두 부문으로 나뉜다. 아울러 연구소가 걸어온 발자취를 널리 홍보하고자 “20주년 기념 동영상”을 제작함.

가. 20주년 기념연보 제작

- 육아정책연구소의 걸어온 길
 - 육아정책이 주요 국정과제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2000년대 중심으로 육아정책 분석, 정리
 - 육아정책연구소의 설립 배경과 성장 과정
 - 정부 시기별 국정과제 등 중심으로 주요 육아정책 동향 분석
 -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 육아정책 관련 정부의 기본계획 분석
- 2000년대 육아정책의 주제별 동향 분석, 정리: 육아정책연구소가 수행한 연구 및 사업 중심으로 분석
 - 법령, 공교육·보육, 교육·보육과정, 교사양성, 기관의 질 관리(평가제), 행·재정 등 주제별로 ECEC 중심의 육아정책 동향 분석
 - 가정내 양육지원, 육아휴직, 일·가정양립 등 양육자 지원의 육아정책 동향 분석
 - 취약가정(한부모, 조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등)의 육아지원 정책 동향 분석
 - 이외 영유아 관련한 지원 정책 동향 분석

- 아동권리, 아동학대, 안전, 놀이권 등등

○ 육아정책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연보 제작

□ 육아정책 및 연구·사업 추진의 사회·경제·정치 문화적 요인 등 분석

○ 시간에 따른 나열식 서술을 지양하고 정책을 둘러싼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요인들도 같이 설명하여 정책의 의의를 진단

○ 사회변동에 따른 미래 지향적 육아정책 탐색

나.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행사 개최

□ AI, 디지털, 기후변화, 인구구조변화 등 가까운 미래 사회의 육아정책 방향과 과제 탐색

□ 급변하는 사회 변화 속에 주요 국가의 육아정책 동향 파악

○ 지난 5월에 개최하는 APEC 교육장관회의에 공동 참여하여 우리나라 유보 통합 정책 소개 및 홍보를 통한 유보통합 정책 발전 구상을 모색하고,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확대 및 국제 교육정책의 동향 파악

다. 20주년 기념 동영상 제작

□ 기관의 정체성과 비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널리 홍보하고자 동영상을 제작 해서 연구소가 걸어온 발자취를 대외적으로 공유하고 육아정책 연구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설립 초기의 사회적 배경, 주요 연구성과, 기관 발전 과정, 그리고 향후 지향점을 중심으로 구성한 기관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기념행사 및 다양한 홍보 채널(홈페이지, 유튜브, SNS 등)을 통해 확산할 계획임.

라. 요약 및 육아정책연구소의 향후 과제 제시

□ 육아정책연구소의 20년을 요약하고(기념연보 요약), 연구소가 앞으로 해야 할 과제와 육아정책의 미래 방향을 모색함.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각종 유관 자료들 수집, 분석
- 육아정책연구소 수행의 각종 보고서 및 자료들 수집, 분석

나. 위원회 구성·운영

- 본 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개 위원회를 구성·운영
 - 20주년 기념연보 발간을 위해 “20주년 발간위원회”를 구성·운영
 -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행사 개최를 위해 “20주년 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
- 20주년 발간위원회의 주무부서는 출판홍보팀이며 20주년 준비위원회의 주무부서는 연구기획평가팀임.

〈표 I-3-1〉 20주년 발간위원회 및 준비위원회 구성

위원회명	위원
20주년발간위원회 (20주년 기념연보) *주무부서: 출판홍보팀	위원장 : 이윤진 위 원 : 강은진, 김은설, 김은영, 최윤경A, 유해미, 박원순, 김아름, 박은정, 송신영 이혜민, 김문정, 노현정, 이재복 간사 : 주송희, 박은영
20주년준비위원회 (기념식 및 국제학술행사) *주무부서: 연구기획평가팀	위원장 : 이윤진 위 원 : 김근진, 김자연, 박은정, 김지원, 송신영, 김혜진, 노현정, 김홍동, 김희원 간 사 : 김태우, 김영민, 최혁준

〈표 I-3-2〉 20주년 관련 간담회 및 자문회의 추진 현황

회의 일정	참석자	안건
2025. 5. 16.	사사 발간 업체(D기획)	기념연보 관련 업무 절차 및 유의사항
2025. 7. 10.	영상 제작 업체(D미디어)	홍보영상 제작 절차 및 유의사항

〈표 I-3-3〉 20주년 발간위원회 추진 현황

회의 일정	참석자	안건
2025. 5. 7.	20주년 전체 회의	추진 계획 논의
2025. 5. 29.	20주년 발간위원회	기념연보 목차 등 구성 내용 논의
2025. 8. 1.	20주년 발간위원회 출판홍보팀	사사업체와 킷오프 회의
2025. 9. 9.	20주년 발간위원회	가목차 확정
2025. 10. 23.	20주년 발간위원회	초안 논의 등

〈표 I-3-4〉 20주년 준비위원회 추진 현황

회의 일정	참석자	안건
2025. 5. 7.	20주년 전체 회의	추진 계획 논의
2025. 6. 2.	20주년 준비위원회 연구기획평가팀, 글로벌협력연구팀	국제학술행사 논의
2025. 7. 3.	20주년 준비위원회	입찰 관련 자료 검토
2025. 9. 10.	20주년 준비위원회 연구기획평가팀, 글로벌협력연구팀	행사업체와 킷오프 회의
2025. 10. 14.	20주년 준비위원회	진행사항 점검 회의
2025. 11. 6.	20주년 준비위원회 연구기획평가	키비주얼, 퍼포먼스 등 논의
2025. 11. 7.	20주년 준비위원회 연구기획평가팀	행사 현장 사전 답사

〈표 I-3-5〉 20주년 기념연보 및 행사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회

회의 일정	참석자	안건
2025. 7. 28.	평가위원 6인(원내 2, 원외 4)	기념연보 사사업체 선정
2025. 8. 27.	평가위원 6인(원내 3, 원외 3)	행사업체 선정

* 20주년 기념 동영상 제작: 2025. 9. ~ 2025. 11.

다. 면담조사

□ 연구소 직원 대상으로 실시

○ 연구소 장기 근속자 중심으로 연구소 변천 과정 파악

II

20주년 기념연보

- 01 20주년 기념연보 추진 착수
- 02 20주년 기념연보 추진 과정
- 03 20주년 기념연보 주요 내용

II. 20주년 기념연보

1. 20주년 기념연보 추진 착수

□ 전체(발간 및 준비)위원회 회의(5.7.)

○ 회의 목적

- 20주년 발간 및 준비 위원회 추진 계획 및 업무 분장 등 논의
- 행사 장소, 행사 주제, 향후 일정 등 논의

○ 회의 참석자

- 20주년 발간위원회 및 준비위원회 위원

□ 제1차 20주년 발간위원회(5.29.)

○ 기념연보 목차 등 구성 내용 논의

- 통사와 연구사로 구분하고 세부 목차 논의
- 통사: 시대 구분 기준 논의
- 연구사: 연구성과 기준 논의

□ 기념연보 전문 사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준비 및 발주(6월~7월)

○ 입찰 준비

- 제안요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 주요 과업 내용

- 본책: 250쪽 내외로 20년 연구소와 육아정책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윤필(일부 집필)
- 요약본: 50쪽 내외로 국문본과 영문본을 따로 제작하되, 인포그래픽 및 디자인 요소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깔끔한 서술로 작성
- E-Book: 목차 링크 기능, 홈페이지 게재 가능한 형태로 제작

○ 조달청 나라장터에 발주(6.11.~ ; 약 4주 공고)

- 최종 총 5곳이 입찰
- 기념연보 전문업체 선정
 - 기술평가위원회 개최(7.28.)
 - 원내 2명, 원외 3명으로 구성해서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시하기획”이 선정

2. 20주년 기념연보 추진 과정

- 사사업체와 첫 회의(8.1.)
 - 주무 부서인 출판홍보팀과 간담회로 진행
 - 주요 과업 확정
 - : 「육아정책연구소 20주년 기념연보」 (도서 700부)
국문요약본 200부, 영문요약본 200부, 원본 PDF 파일
e-book 파일 원본, 과제수행결과보고서 10부,
수집된 데이터/자료 정리 후 외장하드로 제출
 - : (추가제안) 오디오북 제작, 리플릿 제작(100부), 20주년 엠블럼 제작, 발간
소식 알림용 카드뉴스, 직원대상 사료수집 공모전
- 제2차 20주년 발간위원회(8.12.)
 - 키포프 미팅: 발간위원회 대상 오리엔테이션 진행
 - 업체 소개, 연보 제작의 의의 설명, 협조내용에 대한 이해 증진
자료 전달방법 구체화, 가연표 작성법 논의 및 정리 등
- 제3차 20주년 발간위원회(9.9.)
 - 가목차 확정
 - 통사 부분의 가목차 및 업무분장 논의
 - : <표 II-2-1> 참조
 - 연구사 부분 소 주제 분류 (잠정)확정 및 업무분장 논의
 - : 대분류 6개, 소분류 11개
 - *초안 제출(9.30.)

〈표 II-2-1〉 20주년 기념연보 통사 목차(안) 및 집필자

구분	내용		집필자	
KICCE 20년의 발자취	도입	타임라인/숫자로 보는 KICCE 20년	주송희	
	본문	1기	육아정책 전문 연구기관을 세우다(2005~2009)	이윤진 김은설 최윤경 유해미 김문정 이혜민 이재복 노현정
		2기	육아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다(2010~2017)	
		3기	육아정책 선도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다((2018~2025)	
		마무리	20년의 회고, 20년의 전망	

〈표 II-2-2〉 20주년 기념연보 연구사 세부 주제 및 집필자

연구주제 대분류	연구주제 소분류	집필자
아동	• 한국아동패널·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코로나19 발달연구, 성장 발달 코호트 구축	송신영
	• 아동권리/장애, 발달지연 아동(발달지원)/ 미디어/사교육	김아름
부모/가정	• 가정 내 부모 역량 제고 : 취약계층 등 다양한 가족 육아지원/결혼·임신·출산 등/ 부모교육	이윤진
	• 가정 내 양육지원 : 무상교육 등 이용자 입장에서의 기관 이용비용 지원, 공급 확대, 일하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	박은정
유치원/ 어린이집	• 유아교육·보육 통합 및 격차 해소(완화) 연구/ 유초연계 연구/교사 대 아동 비율 등	김은설
	• 영유아교육보육 과정(방과후/특별활동 포함)	김은영
	• 교직원(인력) 연구(자격, 연수, 양성 등)	강은진
	•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컨설팅, 공공성 제고, 돌봄기능, 시설설비, 급간식, 행정지원 등 연구	강은진, 김은설
지역사회	• 육아 친화 환경 조성 연구/ 어린이 문화시설/ 미래 사회 대응 육아정책 연구(인구구조화·지역소멸·디지털 등)	최윤경
정부	• 데이터 기반 중장기 정책 설계 : 직장어린이집/전국보육실태조사/유아교육실태조사/아이돌봄 실태조사/ 산후조리 실태조사/ 중장기 계획 및 로드맵 연구 등	유해미
국외/국제	• 국제협력 기반의 육아정책 확산 및 개발도상국 지원/ 중국협동연구 등	박원순

○ 역대 소장 축하 및 연구소의 상위 관장(국무조정실, 교육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축하 의뢰

□ 제4차 20주년 발간위원회(10.23.)

○ 원고 내용 검토, 주제별 재구조화 등 논의

○ 이후 작업은 부문별로 수정, 보완, 검토를 사사업체와 함께 진행함.

□ 추진일정 개요

〈표 II-2-3〉 20주년 기념연보 추진 일정

구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단계	세부 과업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착수				가목차				시안				최종				인쇄	
착수	킵오프 미팅, 세부일정 수립	■	■																
	자료정리 및체계화		■	■	■	■													
자료수 집	가연표						■	■											
	가목차						■	■											
집필 윤필	인터뷰		■	■	■	■													
	원고집필 및 교정· 교열						■	■	■	■	■								
	축사 의뢰										■	■	■						
	부록 작성										■	■							
촬영	사진수집 및 촬영	■	■	■	■					■	■	■	■						
디자인	디자인 설정 및 감수 본편집									■	■	■	■	■	■				
	최종 수정														■	■			
제작	출력· 인쇄																	■	■

- 1단계: 자료수집
 - 자료 분석, 자료의 체계화 정리
- 2단계: 집필·윤필
 - 가목차
 - 인터뷰
 - 집필, 윤필 방향 설정 등 원고 교정·교열
 - 자료 수집(계속)
 - 부록작성
- 3단계: 촬영
 - 사진수집 및 정리
 - 사전답사 및 촬영 기획, 촬영
- 4단계: 디자인
 - 편집 디자인 방향 설정, 본편집, 디자인 감수, 최종보고 및 수정
- 5단계: 제작
 - 출력, 인쇄, 제본
- 기념연보 목차 및 구성
 - 통사 총 3장 구성
 - 사회 변화 및 정부 주요 정책 그리고 연구소의 시기별 변곡점을 고려하여 시기 구분을 함.
 - 설립배경과 연구소 명칭 등 기반 조성(1기), 생애초기 공정한 출발선의 정책 환경에 따른 맞춤형 육아지원연구 본격화 및 누리과정 제정(2기), 연구 주제 확장과 글로벌 학술 교류의 중추적 역할 수행(3기)
 - 각 장 제목은 최종 다음과 같이 확정함.
 - 1장. 육아정책 전문 연구기관을 세우다(2005~2009)
 - 2장. 육아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다(2010~2017)
 - 3장. 육아정책 선도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다(2018~2025)
 - 각 장의 하위 수준의 절은 기본적인 틀은 다음과 같이 구성 기획함.

- 제1절. 시대적 배경
- 제2절. 연구·경영 조직 특징
- 제3절. 주요 연구사업 특징
- 제4절. 대외협력 및 성과 홍보 등

○ 연구사

- 각 주제별 일관된 흐름 유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함.
 1. 연구배경
 2. 주요 연구내용 및 변천 과정
 3. 핵심성과와 정책적 기여
 4. 미래 전망 및 향후 추진과제
- 연구주제 대·소분류는 <표 II-2-2> 참조

□ 요약본 목차 및 구성

- 제작방향: 전문성의 기록과 대중성의 홍보, 두 역할을 동시에 하는 “보이는 책”

<표 II-2-4> 요약본 목차

구분		비고	분량
도입	화보	기관 및 정책의 핵심가치를 담은 화보	6
	목차	목차, 일러두기	2
	타임라인	KICCE 주요 연혁	2
part 1	사진으로 보는 20년	KICCE 상징적 장면	16
part 2	키워드로 보는 20년	KICCE 연구 및 사업 Top 10	20
part 3	숫자로 보는 20년	주요 성과를 숫자로 요약해 인포그래픽으로 구현	4
			50

□ 기초 자료 수집 리스트 작성

-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담당부서에 요청함(~8.18.)
 - 공개 가능한 자료 중심으로 수집하며 요청 자료는 추가될 수 있음.
 - 한글파일, PDF, 그림파일 등으로 업체가 구축한 서버에 탑재함.

〈표 II-2-5〉 20주년 기념연보 요청 자료 및 담당 부서

요청 자료	담당 부서
경영이념, 경영목표및전략, 운영방침, 비전과 관련된 자료 등	연구기획평가팀
역대 임원 명단 및 재임기간	인사팀
간부(부서장) 회의록, 경영 회의록, 월간 보고서 등	총무정보팀
취임사, 신년사, 각종 연설문 등	부속실
주요 실적(예산, 과제 수 등)과 관련된 통계자료	예산팀
표창장 및 상패, 수상실적 현황	인사팀
각종 홍보물, 포스터 등, 브로슈어, 리플렛 등	출판홍보팀
연도별 주요 행사 및 이벤트 사진, 주요 인물 사진, 주요 시설 사진	부서/개인

□ 연구소 자료 수집을 위한 노력

○ 직원대상 자료수집 공모전: “당신의 기억 속 KICCE를 찾습니다”

- 연구소 직원 대상으로 실시, 심사 후 사례품 지급
- 공모기간: 2025년 8월 25일(금)~9월 12일(금)

○ 스케치 인터뷰 진행(8.22., 8.28)

- 목적: 연구소 20년의 역사적 맥을 빠르게 이해하고, 연구소의 역사를 함께 한 인물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담아내어 개인의 경험과 시선 속에서 조직의 변화와 성장을 조망함.
- 참여자: 연구소 근속기간이 긴 연구직원, 행정직원 5인 이내
- 인터뷰 주요 질문: 입사 당시 분위기와 기억에 남는 순간들, 연구소 조직 및 운영 방식 변천, 기념연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건들, 시기 별 특징들, 연구소의 정체성 또는 특별한 조직문화, 외부에서 바라보는 연구소 vs 내부에서 바라보는 연구소, 연구소가 나아갈 방향 등

□ 가연표 제작

- 연구소 20년 역사에서 수많은 성과들 중에서 중요도를 고려하여 주요 사건을 선정하고 주요한 사건(성과) 중심으로 서술함.
- “좋은” 연보는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사건의 재구성에 있음.

3. 20주년 기념연보 주요 내용

※ 정부의 주요 육아정책(시대적 배경)과 연구소의 역할(경영조직, 주요 연구사업과 성과, 대외협력과 홍보)을 종합적으로 분석, 정리함. 각 시기별 상세한 내용은 『기념연보』에 수록함.

□ 기념연보 제호 확정

○ Twenty Years and beyond, For Every Child's Growth

- 2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학술행사에도 활용 계획

□ 제1장 육아정책 전문 연구기관을 세우다(2005~2009)

○ 제1절. 설립 배경

- 초저출산과 함께 다가온 2000년대

(1)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우리사회에 던진 질문

(2) 출발이 다른 '유아교육'과 '보육'

(3) 국책연구기관 설립에 대한 정부의 구상

○ 제2절. 육아정책 전문 국책연구기관 설립

(1)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방침 결정

(2) 육아정책 전문 국책연구기관의 출범과 초대 소장 선임

○ 제3절. 종합적·체계적 육아정책 연구 시스템 구축

(1) 경영이념의 수립

(2) 초기 연구사업의 중심

①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연구

② 한국아동패널 모형 개발 연구

③ 위탁사업을 통한 정책 집행 업무 수행

(3) 교류협력의 출발점

① 유관기관 연계·협력 네트워크 발족

② 국제 학술교류 및 협동연구 체계 구축

(4) 변화의 시점

- ① 2대 소장 취임
- ② 육아정책연구소로 명칭 변경

○ 제4절. 주요 연구사업의 특징과 내용

- (1) 분절된 육아정책 연구의 통합과 체계화
- (2) 유보통합 연구와 한국아동패널 착수
- (3) 정부 정책지원 연구 기반 마련
- (4) 전문학술지 간행을 통한 국내외 학술교류 거점 구축
 - ① 『육아정책포럼』 창간
 - ② 『육아정책연구』 창간과 등재학술지 선정
 - ③ 영문학술지 『IJCEP』 창간

○ 제5절. 새로운 경영 조직, 새로운 운영 체계

- (1) 출범 당시 경영 환경
- (2) 경영시스템의 성장
 - ① 수탁과제의 효과적 수행을 통한 조직 정합성 제고
 - ② 국제업무 전담 조직 신설
 - ③ 연구성과 및 기관 홍보사업 확산

□ 제2장. 육아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다(2010~2017)

○ 제1절. 분화하는 사회, 진화하는 정책

- (1) 생애 초기의 공정한 출발선
 - ① 육아정책, 미래를 위한 국가의 책무
 - ② 육아정책의 국제 동향
- (2)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과제

○ 제2절. 유아교육·보육 통합정책과 국제협력 강화

- (1) 첫 유보통합 정책, 교육·보육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제정
 - ① 5세 누리과정 제정

- ② 3, 4세 누리과정 제정과 누리과정 전면 도입
- (2) 연구 범위의 확장과 정책 지원 사업 확대
 - ① 유아교육선진화사업 추진
 - ② 유보통합지원단 발족
 - ③ 부모교육 사업 추진
- (3) 국내외 학술교류의 본격화
 - ① 미국 시카고대학과 학술교류
 - ② OECD-Korea 정책 포럼 개최
 - ③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육아정책 협력 기반 조성
 - ④ OECD ECEC 네트워크 국가조정관 및 TALIS 사업 NPM³⁾ 지정
 - ⑤ 독일 청소년연구소(DJI)와의 학술교류
 - ⑥ 창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 제3절. 주요 연구사업의 특징과 내용
 - (1) 누리과정 및 유보통합 추진
 - (2) 무상 보육정책과 제도 평가체계의 확립
 - (3) 데이터 기반 아동·가족 연구 확산과 실증분석 강화
 - (4) 현장 연계 및 부처 협력연구 심화
 - (5) 취약계층 지원과 포용정책의 확장
 - (6) 부모교육 및 가족지원 연구 본격화
 - (7) 육아정책의 국제 기준 연계 및 협력 확대
 - (8) 행사 및 기타 학술 활동 내실화
 - ① 유치원 100년 특별기획, 유치원 교육박람회 개최
 - ② 정책현안지 『육아정책 Brief』 창간
 - ③ 영문학술지 『IJCCEP』 국제 온라인 플랫폼 출판 개시

□ 제3장. 육아정책 선도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다(2018~2025)

3) National Project Manager

- 제1절. 미래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육아정책 연구
 - (1) 사회 구조의 변화와 육아정책의 역할 확대 요구
 - ① 정책 대상의 변화와 확대
 - ② 예측 기반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 부상
 - (2) 아동권리 보장을 향한 국제적 의제의 흐름
 - ① 국제적 주요 의제, 아동권리 보장
 - ②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SDG 4.2(영유아 발달 및 교육 보장)
 - (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새로운 방향성
- 제2절. 아동·가족 정책연구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
 - (1) 국제적 위상 강화
 - ①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부와 협력 네트워크 확대
 - ② OECD TALIS Starting Strong Survey(3S) 및 IELS 사업 수행
 - ③ 국제저널 『IJCCEP』의 SCOPUS 등재
 - ④ UNESCO 아태지역 본부 및 한국위원회와 국제협력연구 수행
 - ⑤ 국제적 이니셔티브에 참여, K-SDG 4.2 워킹그룹 운영
 - (3) 상생 협력 및 지원 체계의 다각화
 - ①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발족
 - ② 민간 및 공기업 협력 파트너십의 확대
 - ③ 한-OECD 유아교육·보육 교원정책 국제세미나 공동개최
 - (4) 국내외 학술 교류의 활성화
 - ① 창립15주년 기념식 개최
 - ②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학술행사 개최
- 제3절. 주요 연구사업의 특징과 내용
 - (1) 돌봄 정책 통합과 증거기반 연구의 확장
 - (2) 출산·돌봄 전반으로의 연구영역 확장
 - (3) 사회 변화에 대응한 연구주제 심화와 다변화

(4) 아동패널 공공데이터 개방

○ 제4절. 기관과 사업의 확대

(1) 공간과 인력의 확대

- ① 5대/6대/7대 소장 취임
- ② 박사 인력의 증가
- ③ 기관 이전-명동 포스트타워
- ④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2) 조직 기능의 확장과 분화

□ 제4장. 20년의 회고, 20년의 전망

- (1) 지난 20년의 회고: 육아정책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육아정책연구소
- (2) 현재의 위상: 육아정책의 깊이와 외연을 함께 넓혀온 연구소
- (3) 다음 20년을 향해: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육아정책 Think Tank로

III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행사

- 01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행사 추진 착수
- 02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대회 추진 경과
- 03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대회 추진 내용

Ⅲ.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행사

1.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행사 추진 착수

□ 전체(발간 및 준비)위원회 회의(5.7.)

- 20주년 발간 및 준비 위원회 추진 계획 및 업무 분장 등 논의
 - 행사 장소, 행사 주제, 향후 일정 등 논의
 - ※ 행사 장소 논의 ☞ 르메르디앙 선정(서울 중구 소재)
- 참석자
 - 20주년 발간위원회 및 준비위원회 위원

□ 제1차 20주년 준비위원회(6.2.)

- 20주년 국제학술행사 주제 발굴 및 발표자 검토 및 논의
- 참석자
 - 20주년 발간위원회 위원 중 본부 및 글로벌협력연구팀
- 회의 결과
 - 20주년 국제학술행사 주제(안) 발굴 (2개 주제)

1) [주제(안) 1] 디지털 시대, 육아정책의 미래 비전과 새로운 도전, 또는 디지털 시대의 육아, 새로운 도전과 기회(과제)의 세부 주제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육아지원의 가능성
- 빅데이터와 AI 기반 육아정책 국내외 사례
- 디지털 격차 해소와 포용적 육아정책
- 부모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 비대면 육아지원서비스의 발전과 한계

2) [주제(안) 2] 육아정책의 미래 비전과 글로벌 트렌드

- 전 세계 육아정책의 변천 및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직면한 도전 과제는 무

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비전을 함께 논의

□ 제2차 준비위원회(6.20.)

○ 안건

- 20주년 국제학술행사 주제 공유
- 행사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검토 및 논의
- 국제학술행사 선정 주제에 따른 기조강연자 및 주제발표자 논의
: 기조강연자 및 주제발표자 논의
: 섭외 등에 따른 업무 분장 논의

□ 제3차 준비위원회 회의(7.3.)

○ 행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자료 검토

- 제안요청서 검토 및 논의
: 이외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면밀히 검토

□ 행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7월~8월 중)

○ 행사대행업체 사전 규격 및 입찰 공고

- 사전 규격(~8.2.)
-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공고(8.5~8.19.)
: 최종 4곳이 입찰

□ 기술평가위원회 개최(8.27.)

○ 원내 3명, 원외 3명으로 위원회 구성

2.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대회 추진 경과

□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행사 날짜 및 장소

- 날짜: 2025년 12월 5일
- 시간: 기념행사(오전), 국제학술행사(오후) <표 III-2-1> 참조
- 장소: 르메르디앙 3층(서울 중구 소재)

□ 20주년 국제학술행사 주제 확정

- 기념식 주제: [회고] 연구소 20주년 맞이하여 성과와 비전 제시
 - 국가 정책에 기여한 연구 성과, 정책 변화의 흐름과 연구소의 역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연구의 방향 제시 등의 기념행사 개최
 - 국제학술행사 주제: [전망] 메가 트렌드와 육아정책의 미래
 - 통합적 관점, 지속가능한 정책, 공공성 강화, 연구소 역할 확대 등의 방향성을 토대로 미래비전 설계
 - AI, 기후변화, 인구구조변화(저출생) 등의 도래한 미래의 메가 트렌드 시대에 대한 기초강연과 육아 관련 주제발표로 구성
- 20주년 국제학술행사 기초강연자 및 주제발표자 완료
- 행사 일정은 <표 III-2-1>를 참조

<표 III-2-1>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행사 구성 및 기획

시 간	내 용
9:30~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및 접수 • 포토세션 운영
제1부: [회고]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10:00~10:05	• 개회 및 행사소개
10:05~10:10	• 소장 인사말
10:05~10:35 (30)	• 내빈 소개 및 창립 20주년 기념 축사
10:35~11:00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립 20주년 기념 연구소 성과 소개(※영상) • 창립 20주년 축하 퍼포먼스
11:00~11:15 (15)	• 창립 20주년 기념 케이크 및 사진촬영
11:15~13:30	• 오찬
제2부: [전망] 국제학술행사	
14:00~14: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행사 취지 및 주요 인사 소개 - 기초강연자 및 발표자 소개
14:10~14:50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강연 - 주제: 메가 트렌드와 육아정책의 미래
14:50~15:00	• 정돈
15:00~15:45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발표-1(15min) : AI와 육아정책 • 주제발표-2(15min) : 기후변화와 육아정책 • 주제발표-3(15min) : 인구구조변화(저출생)와 육아정책
15:45~16:00	• 휴식
16:00~16:50	• 토론
16:50~17:00	• 기념촬영 및 폐회

〈표 III-2-2〉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행사 준비위원회 과업 계획 및 일정(안)

구 분	2025년								비 고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념행사 및 국제학술행사 기획 및 방향성 설정									
행사준비 사업계획서 작성 및 검토									
업체 입찰 준비 및 공고									
용역 발주 및 계약									착수보고회
기획 및 구성 확정									
엠블렘, 키비주얼, 홈페이지 제작									
내빈명단 조율 및 확정, 발표자 섭외									
기념품 기획 및 확정									
행사 퍼포먼스 기획 및 선정									중간보고회
자료집 준비 및 제작, 발표자료 수합 및 편집(번역 포함)									
기념행사 및 국제학술행사 진행									
영상자료 제작, 정산, 결과보고 등									최종보고회

〈표 III-2-3〉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행사의 업무분장

구분	역할	세부과제
육아정책연구소 (20주년 준비위원회)	행사 기획 및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기획의도 및 추진방향 설정 - 기념행사 및 국제학술행사 주제 선정 - 기념행사 축사 및 국제학술행사 기조강연자, 주제발표자, 패널 선정, 섭외 - 귀빈(행사 초대) 명단 정리 - 행사장 선정 - 만족도 조사 항목 개발
행사업체	2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학술행사 기획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총괄 지원 - 행사 당일 온라인 발표 지원 - 엠블렘 제작 및 홈페이지 구축(기관 홈페이지와 연동) - 행사장 운영 지원 - 기념행사 축하 퍼포먼스 준비 - (온라인 발표) 영상자료 제작/편집, 번역 - 자료집 제작 - 기념품 기획 및 납품 - 귀빈 및 발표자 등 일정 조율 및 의견 전반 지원

3.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대회 추진 내용

□ 주요 추진 내용

○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대회 전반적인 기획·지원

- 키비주얼/엠블렘 기획 및 제작
: 기념연보 제호를 이미지화해서 제작
- 슬로건: 모든 아이의 성장과 함께한 20년, 미래를 열다
: 기념연보 부제로 활용
- 귀빈 기념 축사 영상 제작
- 귀빈, 기조강연자, 주제발표자, 패널의 발표 원고 의뢰 및 수합
- 20주년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 자료집 제작
- 기념품 기획 및 디자인

○ (행사 당일)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대회 운영·지원

- 행사장,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
- 행사 전반 지원(인력 지원 포함)
- 사진 및 동영상 촬영(행사 홍보 및 현장 스케치 등)
- 물품 조달
- 행사 당일 안전 관리
- 자료집 등 인쇄물 배포 및 제작물 설치

○ (행사 이후)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대회 마무리

- 행사 사진, 영상을 바탕으로 영상자료 제작
- 행사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보고
- 최종보고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창립 20주년 기념식(2025.12.05. 10시~11시30분)

- 육아정책연구소 창립 20주년을 축하를 위해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여야

국회의원, 레고재단(연구소와 MOU 체결) 부의장이 영상과 서면축사를 보냄.

- 연구소 역대 소장 4분이 내방하여 축사를 전함. 연구소와 함께 근무했던 직원, 육아지원네트워크 기관장, 언론, 연구소의 연구 및 경영자문위원회 위원들 등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창립 20주년을 함께 축하함.

□ 창립 20주년 국제학술대회(2025.12.05. 14시~17시)

- “메가 트렌드와 육아정책의 미래”를 주제로 기후와 환경, 인구구조 변화, AI·디지털 기술 확산 등 전 세계적 메가 트렌드가 아동과 가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미래지향적 대응 전략을 모색함.
- 기초강연에서 한상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영유아 교육이 기술 중심을 넘어 인간의 존엄·관계·협력 등 기본 가치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위험사회와 제2근대로의 전환이라는 변혁기 속에서 개인화 경향이 더욱 심화되는 만큼, 영유아 교육은 협력과 대화를 기반으로 한 인간형을 길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함.
- 주제 발표에서 Luckin 교수(University College London)는 영유아기 AI 활용은 인간 중심 학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발달 적합성·윤리·데이터 보호 등 국가 수준의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Hashizume 교수(The University of Tokyo)는 기후위기가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 위협한다며, 국가가 폭염 대응체제와 아동 보호정책을 신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함. 독일의 Norbert Schneider 교수(Johannes Gutenberg University of Mainz)는 독일의 경험을 근거로 출산 회복을 위해 국가가 일·가정양립과 젠더평등 등 사회·문화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함.
- 국제학술대회 토론의 좌장은 서영숙 협회장(한국장난감도서관협회)이 맡았으며, 고영미 순천향대 교수, 김진욱 명지대 교수, 나성식 백석대 교수, 안동현 한양대 명예교수, 이강이 서울대 교수, 이인철 서울100인의 아바단 단장, 정선아 숙명여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함.
 - 토론에서는 AI, 기후위기, 인구 변화가 영유아 발달과 돌봄 환경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

원의 규범 마련, 돌봄 부담 완화, 인간 중심 교육·돌봄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그림 III-3-1] 육아정책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행사



- 한편, 본 사업에서는 20주년 국제학술행사와 더불어, 지난 5월 제주도에서 개최한 2025 APEC 교육부 교육부장관 회의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획하였고, APEC 국제학술행사를 공동 개최함.
 -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연구소의 역할을 홍보함.
 - 이에 연구소는 9대 교육개혁 과제 중 첫 번째인 유보통합 정책을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함.
- 2025 APEC 교육부 교육장관회의(2025.5.13.~5.14.)
 - 2025년 우리나라는 APEC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미래교육 의제를 선도하기 위해 제7차 교육부장관 회의 추진
 - 2025 APEC 주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 (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Connect, Innovate, Prosper)
 - 2025 APEC 교육장관회의 주제(안):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와 포용적 성장 촉진(Bridging Educational Gaps and Promoting Inclusive Growth through Digital Transformation)
 - 연구소는 유보통합 정책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정책 추진 현황과 주요 성과를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알리고, 정책 인지도 제고와 국제적 확산에 기여

[그림 III-3-2] APEC 교육장관회의 연구소 유보통합 홍보 부스



IV

다음 20년을 준비하며

- 01 요약: 지난 20년의 회고
- 02 다음 20년을 향해: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육아정책 Think Tank로
- 03 미래 육아정책 연구의 지향점

IV. 다음 20년을 준비하며

1. 요약: 지난 20년의 회고

□ 지난 20년의 회고

- 육아정책연구소는 2005년 설립 이후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의 급격한 인구·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육아정책의 형성과 발전을 함께해 온 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연구소의 역사는 저출생의 심화,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돌봄의 사회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가가 아동과 가족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정책의 역사이기도 함.
- 출범 초기(2005~2009) 연구소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제도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상황에서 영유아 정책 전반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와 제도 분석을 수행하며 정책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함. 이 시기 연구소는 ‘영유아에 대한 국가 책임’이라는 정책 기초를 정립하고, 육아정책을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 보육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 부모의 양육 부담 등 당시 주요 정책 현안을 다룬 연구들은 이후 국가 차원의 제도 개편과 정책 확장을 위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됨.
-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2010~2017) 연구소의 역할은 보다 확장됨. 특히 보육·교육·돌봄 정책을 아동의 성장 발달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연구를 축적하며, 생애 초기 단계 정책의 연계성과 지속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해 옴.
 - 무상보육, 누리과정 도입, 육아휴직 확대, 아동수당 도입 등 굵직한 정책 변화 속에서 연구소는 단순한 제도 분석을 넘어 정책 설계와 평가를 지원하는 핵심 연구기관으로 기능함.
- 2018년 이후에는(2018~2025) 연구소의 연구 영역과 역할이 한층 다층화됨. 연구 주제는 기존의 육아 중심 연구를 넘어 출산 전후 돌봄, 산후조리, 가족 다양성, 취약계층 지원, 지역 격차 해소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기존 연

구 또한 보다 정교하게 심화됨.

- 산후조리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출산·양육 정책, 농어촌·다문화·한부모·조손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 연구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논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함.

□ 현재의 위상: 육아정책의 깊이와 외연을 함께 넓혀온 연구소

- 20주년을 맞이한 오늘날, 육아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 육아정책 분야에서 단순한 연구 수행 기관을 넘어, 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연구의 깊이와 외연을 함께 확장해 온 전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함.
- 이러한 과정에서 육아정책연구소는 단순히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넘어, 정책 형성과 실행 과정에서 신뢰받는 연구 파트너이자 조정자로 기능함. 지금의 육아정책연구소는 축적된 연구 역량과 데이터 자산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정책 환경 속에서 육아정책의 방향을 안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기관으로 평가됨.

2. 다음 20년을 향해: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육아정책 Think Tank로

□ 앞으로 육아정책연구소가 마주하게 될 정책 환경은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차원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음. 이러한 질적 변화는 육아정책을 단일 부문 정책이 아닌, 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와 긴밀히 연동된 핵심 사회정책으로 재인식할 것을 요구함.

- 저출생의 구조화와 인구 감소 사회의 본격화, 가족 형태와 삶의 방식의 지속적인 변화,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와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의 상시화는 기존의 정책 틀과 접근 방식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이라는 개별 정책 영역을 넘어, 출산·돌봄·가족·아동권리를 포괄하는 통합적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분명히 해 나가야 할 시점에서 있음.

□ 첫째,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유보통합 정책과 관련하여 연구소의 역할은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임.

- 부처 통합이라는 제도적 전환을 계기로 유보통합 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접

어 들었으나, 정책의 구체적 실행과 현장 정착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소는 단기적인 정책성과를 전제하기보다, 유보통합 정책의 추진 여건과 쟁점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점검·분석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기능해야 함.

- 둘째, 연구소는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역량을 한층 더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 한국아동패널과 신규 패널 연구를 통해 축적된 장기 종단 데이터는 정책 효과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임.
 - 앞으로는 이러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관리·확장하는 동시에, 정책 설계와 평가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근거 기반 정책결정의 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는 정책의 단기적 성과를 넘어 중장기적 영향을 점검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함께 평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셋째, 연구소는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함.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 연구에 더해,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돌봄 실험과 정책 실행 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축적함으로써, 현장의 성과와 한계가 다시 정책으로 환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 이를 위해 포럼, 공청회, 전문가 협의체 등 다양한 공론의 장을 통해 정책 논의를 확장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정책 연구에 반영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미래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연구를 확대해야 함. 인공지능과 플랫폼 환경의 확산, 노동 구조의 변화, 기후 위기와 같은 거시적 변화는 아동과 가족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육아정책 역시 새로운 관점과 상상력을 요구받고 있음.
 - 연구소는 이러한 변화가 돌봄의 방식과 내용, 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미래 사회에 적합한 육아정책의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 다섯째, 국제 비교와 협력을 통해 한국 육아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세계적 맥락에서 재조명하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함. 국제기구 및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한국의 정책 경험을 국제 사회와 소통함으로써 연구소의 연구 역량과 정책적 위상을 더욱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20년간 국가 육아정책을 선도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기관의 법적 위상과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 앞으로 연구소가 명실상부한 육아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연구역량을 축적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

3. 미래 육아정책 연구의 지향점

- 유보통합 정책을 선도하고 질적 제고 도모
 - 연구소가 설립된 주요 배경이 유아교육과 보육의 종합적 체계적 연구를 수행하고 궁극적으로 유보통합을 이끌어 내는 데 있음.
 - 지난 두 번의 유보정책이 국정과제로 설정되고, 추진을 시도했으나 불발됨. 국책연구기관인 연구소는 국정과제를 지원, 수행해야 하는 책무와 더불어 씩크뱅크 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함. 즉, 연구소가 유보통합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핵심 주축이 되어야 할 것임.
 - 한편, 향후 유보통합은 단순히 행정체계를 합치는 제도개편이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국가 돌봄·교육체계의 재구조화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육아정책 “돌봄”에서 “성장”으로: Care to Grow
 - 저출생, 가족구조 다양화, 기술혁명, 기후위기라는 초복합 변화 속에서 육아정책은 아이를 ‘돌보는 일’을 넘어, 국가의 미래 역량을 형성하는 성장 인프라로 재정의되어야 함.
 - 앞으로의 육아정책은 “Care to Grow”, 즉 돌봄은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는 ‘지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재생산력·연대력을 키우는 국가 성장의 기반이 되어야 함.
- 디지털·AI 시대의 “육아 리터러시(Parenting Literacy)” 개념화
 - “육아 리터러시(Parenting Literacy)”는 ‘미디어 리터러시’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단순히 육아 정보 이해력이 아니라 디지털·사회·심리적 변화 속에서 부모가 아이의 발달을 이해하고, 기술·사회·정책 자원을 올바르게 활

용할 수 있는 복합적 역량으로 설명할 수 있음.

- 향후 육아정책의 주요 과제는 이러한 육아 리더러시 개념을 정책 설계, 부모 지원체계, 교육 콘텐츠 등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기후변화 대응 육아정책

- 기후변화는 육아정책의 외적 요인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정책 설계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함. 따라서 앞으로의 육아정책은 아이와 가정이 기후 리스크 속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할 것임.
- 어린이집·유치원은 폭염·홍수·미세먼지 대응 인프라를 기본 요건으로 삼아야 하고, 돌봄 운영자는 기후 예측 체계를 활용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함. 또한, 부모와 교사에게는 기후 감수성 교육을 제공하고, 기후 취약지역 가정에는 우선적 지원이 이뤄져야 함.

□ 다변화 시대의 '보편성'과 '맞춤형'의 균형있는 육아정책

- 재혼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비혼·동거가정, 1인부모 등 다양한 돌봄 주체가 등장한 만큼, 육아정책은 '가족의 형태'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중심에 뒀야 함.
- 즉, 모든 아이는 보편적으로 공공의 책임 아래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 방식은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제공되어야 함.

□ 돌봄의 탈성별화

- 많이 변화되고 있으나 육아는 여전히 '여성의 부담 완화'로 인식되고 있음. 앞으로는 '남성의 참여와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전망함.
- 남성 육아휴직률을 높이는 차원이 아니라, 돌봄노동의 성별 분리 구조를 해체하는 새로운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가족과 사회 간의 돌봄 부담을 재조정하고, 노동시장 구조(근로시간, 임금체계, 평가문화 등)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임.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2020.1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 김나영(2018).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 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 육아정책포럼 겨울호. 23-31.
- 김동훈·최효미·홍근석·김태우(2021). 양육지원정책 중장기 재정 추계 및 분담구조 개선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최윤경·권미경·최효미·김나영·김자연·박은영(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최은영·문무경·이윤진·권미경·박원순·배운진·김지현·이재희·박은정·김혜진·이혜민(2022). 2022년 유아교육 실태조사.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 e-나라지표, 맞벌이가구 비율,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7 (인출일: 2025. 3. 24.).



Retrospect and Prospect of Korea's Early childhood Policy

Yunjin Lee et al.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future directions of early childhood policy in Korea through an institutional analysis of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KICCE) over the past two decades. Established in 2005 as a national policy research institute specializ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ECEC), KICCE has contributed to the formulation and expansion of evidence-based childcare policies amid rapid demographic, social, and economic transformations, including persistent low fertility, changing family structures, and increasing societal demand for childcare services.

The study aims to reconstruct the trajectory of Korean early childhood policy alongside the institutional evolution of KICCE and to identify emerging policy challenges in an era characterized by demographic decline and growing social uncertainty. Drawing on institutional archives, policy reports, and historical documentation, the study analyzes major phases of policy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focusing on how research activities supported policy innovation and system reform. The findings suggest that KICCE played a critical role in consolidating fragmented research areas into an integrated policy framework, advancing discussions on public responsibility for childcare, and strengthening evidence-based policymaking through longitudinal data initiatives such as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The analysis identifies a gradual expansion of research scope from

foundational policy infrastructure to more diversified themes, including family diversity, child rights, regional disparities, and integrated care systems. In recent years, the institute has further strengthened data-driven research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contributing to comparative policy learning and global knowledge exchange.

The study argues that future early childhood policy must move beyond sector-specific approaches toward an integrated social policy framework addressing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climate risks, and evolving care environments. It concludes that strengthening long-term research capacity, enhancing policy-practice linkages, and securing stable institutional foundations are essential for sustaining evidence-based early childhood policy in Korea. By situating institutional history within broader policy change, this study provides insights into the role of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es in shaping sustainable and inclusive ECEC systems.

육아정책의 회고와 전망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3330
9 791168 651395
ISBN 979-11-6865-139-5